

漁港消息

발행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 韓國漁港協會
法人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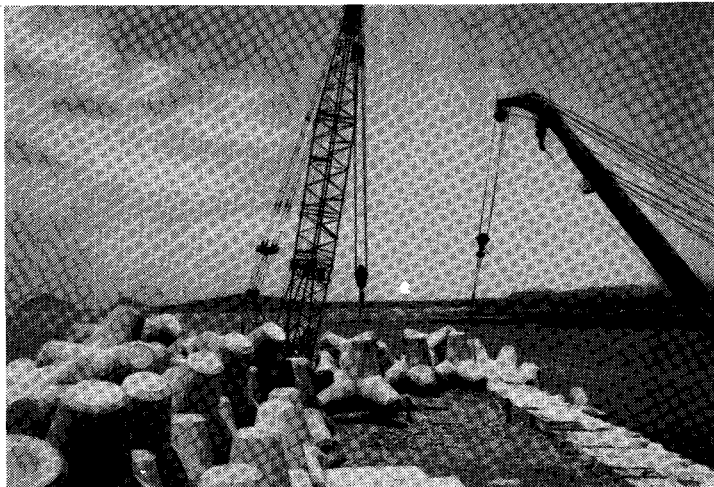
등록일: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水産廳직제 大幅改編

東西南海에 漁港事務所 所長職級 4, 5급으로 格上



■ 오는 6월부터 동·서·남해에 어항사무소가 증설될 예정이다.

수산청 定員도 84名이나 增員

오는 6월경 施行

수산청 직제 개편안이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일부 직제가 개편 증설돼 출범한다.

요원 24명 증원 예정에 44명 이 증원되고, 수산진흥원에 신설되는 수산경제연구소에 5명, 북양수산연구소에 5명, 어업지도관리사무소에 5명, 어업지도조사소에 5명, 어업지도조사관 40명이 증원돼 모두 84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같은 직제 개편으로 4급상당 과장급 4명, 5급계장급 12명이 늘어나게 된다. 어항사무소의 경우, 동·서·남해에 사무소를 두 고 시설과에서 5명, 어항과에서 12명, 여수어항관리사무소에서 11명, 새로 임용될 9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서해와 남해는 각각 4급상당의 소장, 동해는 5급상당의

바다가꾸기 등 協議

尹沃榮 수산청장 主宰 새秩序·新生活團體長회의

수산청은 4월 11일 새 질서·생활실천운동 6개월을 맞아 산하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도의 계획'을 시달 하고 활성화 방안을 협의 했다.

윤沃榮 수산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별 단체별로 실천 계획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갖도록 하고, 현장중심의 가시적인 실천이 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협의됐다.

4월 10일 13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된 새 질서·생활실천 주요 활동상황은 모두 17만 6천 9백 72명이 참여, 자율 실천결의 대회와 바다가꾸기 캠페인을 비롯 교통 질서확립, 자연보호, 근접악 및 저속생활화 등의 활동을 벌여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멘트 수입키로
시멘트수급안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업계에서 수입으로 배정된 수입시멘트 1백만톤 물량에 대해 1차로 63만 3천 7백 70톤을 59개 건설업체에 배정, 상반기중 수입토록 했다.

港灣등 자본시설 擴充

經濟企劃院 92豫算편성 指針에 反映

정부 92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육상과 국민 생활향상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성장으로 요인이 되고 있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중소기업설비투자촉진 등 성장잠재

력과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투자규모, 투자시기를 재검토하고

직접성비의 억제, 정부와 민간부분간의 기능재정립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경제기획원은 사업비예산의 편성과 관련 기존사업과 목적이 유사 하더라도 공사가구가 다른 것은 신규사업으로 하고 주요신규사업은 사전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공공투자사업은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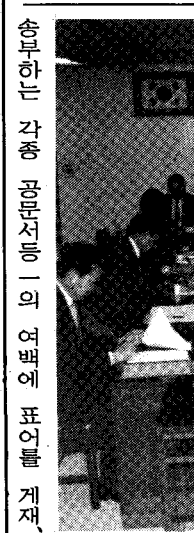
이밖에 계속사업은 집행현황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지적된 개선사항을

수산청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재해예방국민홍보용 포스터를 활용,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판선이 재해의 확산을 막는 5점이다.

防災의식 鼓吹

標語등을 활용



송부하는 각종 공문서 등의 여백에 포스터 게재

'91어항공사계약현황 (천원, m)

항명	예산	도금액(관급 자체계)	물량
마포	1,000,000	925,100	동방파제하부 89, 두부하부 1식
적포	3,800,000	3,354,223	북방파제 103, 남방파제 80, 적출대 1기
문진	4,000,000	3,678,000	북방파제상부 134, 남방파제하부 110
위미	4,000,000	3,448,000	동방파제 69, 서방파제 46, 파제벽 105
농양	460,000	397,111	물양장상부 223, 동방파제 보강 1식
어란진	540,000	519,200	86,319m ³ (준설)
지서포	1,500,000	1,391,500	파제제상부 100, 하부 257, 물양장하부 26
안마	3,000,000	계약요청	남방파제 126, 상부 30, 북방파제 상치 1식
추마	300,000	-	방파제보강 1식
소곡산도	3,876,000	-	방파제 상부 16, 하부 32, 가방사제
안흥	3,100,000	-	물양장상부 534, 하부 396
어청도	1,000,000	-	서방파제하부 59, 제작장 1식
국동	1,900,000	-	물양장상부 280, 하부 238
구계	4,400,000	-	북방파제 142, 남방파제 98, 물양장 160, 상부 30, 파제제 70, 선양장 30
안도	861,000	-	동방파제보강 23, 두부 1식
대진	543,000	-	물양장상부 100, 하부 150
외연도	2,750,000	-	서방파제 94, 물양장하부 280, 동방파제보강, 두부, 등대
녹동	1,300,000	-	남방파제 164
사동	2,700,000	-	북방파제 137, 남방파제 140
모슬포	3,040,000	-	동방파제 120, 물양장 546
방어진	600,000	-	남방파제보강, 두부, T.T.P거치 193
연도	240,000	-	파제제상부 110, 북방파제보강 1식, 물양장제단 1식
정자	308,000	-	물양장상부 310, 선양장 30, 호안하부 16, 암초 1식, 북방파제 보강 1식, 등대
정방	1,600,000	-	
서유현	3,000,000	-	
방어진	2,200,000	-	
연도	648,000	-	
두	300,000	-	

새질서·새생활 캠페인
불법어업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하자

이런에 처음으로 실시된 수입시멘트 배정 91년도 도입한 도입배정 1백위내업체로서 지난해 수입시멘트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물량이 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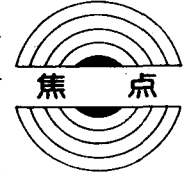
일부국민 및 재해대책위원회에 대한 방재의식 고취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재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漁港환경정秩序確立運動」을 提唱하면서

汚物・폐수放置할건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의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환경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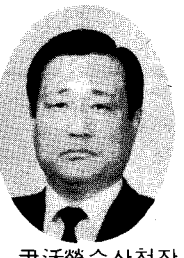


환경정착운동이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尹沃榮 수산장



尹沃榮 수산장

환경정착운동이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대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환경정착운동이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定期청소·廢水처리施設等 時急

漁獲物揚陸處理시설現代化해야

바다에서 잡히는 어획물은 신선하고 맛있다. 그러나 어획물 처리 시설이 현대화되지 않으면, 신선도와 맛을 잃을 수 있다. 정기적인 청소와 폐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는 어획물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한편 정부는 어항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 어항의 개발은 어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어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정기적인 청소와 폐수 처리 시설의 현대화는 어획물의 품질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우고, 평범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점이 이르렀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환경정착운동이 가세할 무렵에 환경정착운동이 대두할 것이라는 예상이나 다름이 없다.

취임

11월 11일 수산장장 주재실에서 새해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승진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徐承男 연구원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김영환(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사 4월 22일 취임했다.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3)

船揚場

4. 소용연장, 소요면적의 산정

선양장의 소용연장, 소요면적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상시용(常時用), 황천시(荒天時)피난용과 월동용의 이용목적별로 각각의 소요수치를 산출한다. 선저(船底)의 청소나 페인트도장등의 적은 수리를 선양장에서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시용에 포함시킨다.

가. 상시용
표준일의 선양장 이용어선척수를 근거로 산출한다. 어선을 세로로 늘어 놓는다고 하면 소요연장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L = \frac{\sum B + b(n+1)}{m}$$

L = 선양장 연장

b: 선간(船間)의 여유(선형에 따라 다르나 배와 배사이에 사람이 도구를 갖고 다닐 필요가 있어 0.5m~1.0m 정도로 한다.)

n: 표준일 선양장 이용어선척수

m: 어선을 세로로 늘어 놓는 열수(烈數)

선치장(船置場)의 소요면적은 최대 이용어선 선장(船長)에 여유를 더한 길이에 위의 연장을 곱한 것으로 한

계수	3톤미만	3~5톤	5~10톤	10~20톤	20~50톤	계
척수	50	20	3	-	-	73

다. 다만 이 면적은 H, W, L에 파도가 올라오는 높이보다 높은 곳에 확보되어야 한다.

나. 황천시피난용 월동용
이 경우는 어선을 태풍, 파랑과 유빙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선치(船置)부분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소요면적 = 이용어선척수 × 1척당 점유면적

이상으로서 소요면적이 산출되었으나 이상시(異常時)에 있어서는 어업활동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다른 목적의 용지를 선치장의 소요면적중에 포함시킨다.

예를들면 보통때는 야적장 용지, 어구건조장용지등의 용지라도 황천시에 선치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면 이러한 용지를 선치장의 소요면적에 포함하여 배치계획을 함으로서 용지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더욱 사로부(斜路部)는 상시용과 겸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기에는 어느정도 대형선도 선양을 하기 때문에 사로의 구배를 완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상시용과 황천시피난용·월동용의 각각에 대하여 소요연장·소요면적을 구하나 전체의 소요량을 산

정함에 있어 이러한 것을 단순히 합계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용과 황천시 피난용·월동용간의 중복부분을 뺀것을 소요량으로 한다.

5. 소요연장, 소요면적, 총족율의 산정에 표준일의 이용어선 척수가 다음표와 같은 어항에 있어서 선양장의 소요연장·소요면적을 산정한다.

표에서의 어항은 월동용으로 선양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시용의 소요량을 산정한다.

표중에서 선양장을 이용하는 어선을 60척으로 보면
소용연장 = $\sum B + b(n+1) = 60 \times 2.8m + 0.7m(60+1) = 211m$

여기에서 2.8m: 선양장을 이용하는 어선(5톤이하)의 평균선폭. 0.7m: 어선과 어선간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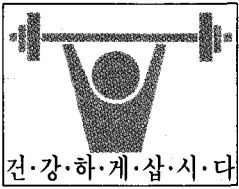
상시용의 소요연장을 산정한 것이므로 어선은 선양장의 세로로 1열(m=1)로 진열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다음은 소요면적에 대한 산정에 있어 황천시에 선양장에 피난하는 어선척수를 대상으로 한다.

상시용의 이용어선척수는 60척이었으나 황천시에는 70척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소요면적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소요면적 = 이용어선척수 × 1척당 점유면적 = 70척 × 45㎡ /척 = 3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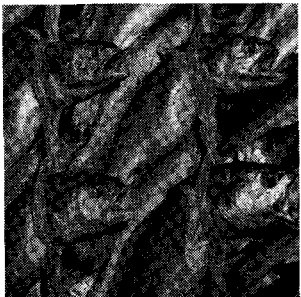
굴·비 独特한 풍미로 즐겨 감칠맛 식욕을 돋궈



건강·하·게·삼·시·다

우리나라에서 참조기의 가공품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굴비이다. 굴비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수산가공품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특산물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관혼상제와 같은 의식에 많이 사용되었고, 독특한 풍미(風味)가 있어 즐겨 먹어 왔다. 원료 참조기를 아무런 전처리없이 생어체 그대로 원료탕에 대하여 17~25% 정도의 소금을 뿌려 나부름이 나 콘크리트 탱크에 4~7일간 장염(腸炎)한 후 건조하여 굴비를 만든다.

이와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굴비의 제조시 건조공정으로 인해 참조기에 비하여 육단백질은 약간의 분해가 일어나고, 비타민군은 다소 파괴되며, 지질은 산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육단백질의 분해와 지질산패가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어 부패한 냄새나 지방질이 산패한 기름 절인 냄새가 나고 색깔이 짙어 맛도 없고 영양가도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건조시 수분이 감소됨에 따라



원형 그대로 염장하여 말리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공정에 자가 소화효소나 내열성 세균이 생산하는 효소들의 해, 육단백질의 분해로 영양손실을 다소 진행되나 우리아미노산 함량은 증가되어 생조기 굴비의 경우 원료인 참조기와 마찬가지로 감칠맛을 내는 알라닌 그리고 쓴맛을 가진 리진신이 중요한 맛성분이고, 물론 이 때 지방질도 입속에서 침과 혼합되어 유탁액이 되어 육조 직과 함께 맛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굴비는 소금에 절인 다 음에 말렸기 때문에 짠맛이 강하고, 이 짠맛과 유리아미노산이나 베타아민이 어울려 내는 감칠 맛인 맛맛이 성인들에게는 식욕을 돋구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고 생각되나 성인들과는 식습관이 다른 요즘 어린이들의 경우 입맛이 없다고 굴비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 싶

집단 행동으로 성취하려는 나쁜 풍조

방종과 질서파괴, 민주화 가로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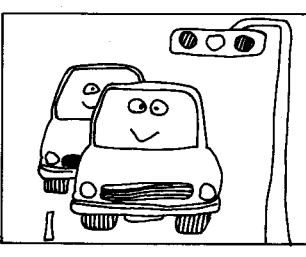
세계의 손님들앞에 보인 그 주인정신과 질서의식을 다시 되살려 올림픽을 치룬 나라의 명예를 오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파괴적 집단행동은 뿌리뽑아야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난만 해도 그렇다. 물론 인구집중과 차량의 증가가 그 원인이겠지만 거기에 교통질서의 난맥이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차를 지키거나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없이 서로 빨리 가겠다는 데서 교통이 밀리고 횡단로와 신호를 무시하고 마구

세계의 손님들앞에 보인 그 주인정신과 질서의식을 다시 되살려 올림픽을 치룬 나라의 명예를 오래 지키는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파괴적 집단행동은 뿌리뽑아야
우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신상필벌의 사회기강 확립 아쉬워



건너고 마구 달리다가 사고를 일으킨다.
「법보다 주머니가 깡다」는 말은 옛날부터 있어왔지만 요즘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하려는 나쁜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

질서의식의 생활화와 관습화만이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사회의 국민소득을 부러워하기 전에 먼저 그나라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올림픽에서 전

가장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범이 되어야 할 학원에서 집단행동으로 학칙을 무시하고 파괴와 폭력을 일삼는 것이 예사로 되고 있다. 무엇이든지 집단행동을 하면 정당화되고 합법화된다는 발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며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민주화와 자율이 방종과 질서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줄 때가 되었다. 사회는 나 혼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고 함께사는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라는 자각이 솟는다면 자기 이익만을 고집하는 탈법과 무질서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공장의 폐수를 마구 버려 강과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는 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다는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학대한다는지 하는 풍조도 함께 추방해야 한다. 그리하여 법과 질서를 지킨 사람이 우대를 받고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 신상필벌의 사회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새秩序·新生活

새秩序·新生活

올림픽을 치룬 나라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것인가. 스포츠 세계 4강에 올랐다는 것, 또 본국의 나라에서 16년만에 동과 서가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었다는 것, 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었다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5천년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한민족의 민주화의 역량을 흠뻑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다.

민주화의 역량이란 바로 공중질서의 준수와 건전한 사회의식의 실천에 있다 할 것이다. 우리는 그때 세계로부터 친절, 질서, 청결의 수준높은 문화시민주의 찬사와 감사를 받았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뽐내는 마음도 없지않았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 우리사회에서는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이 오히려 특권인듯 인식되는 기운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이익은 해쳐도 된다는 편리한 사고방식이 사회풍토를 흐려